노동동향

경제일반 동향

최효미*

◈ 경제활동 부진 지속

○ 2003년 7월, 대규모 사업장의 분규영향으로 생산은 증가세 둔화[1)]

- 산업생산은 섬유·의복,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증가세를 보여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내수 출하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수출 출하는 반도체, 영상음향통신 등이 10.7% 증가하여 제품 출하 전체는 1.4% 증가함.
- 재고는 석유정제, 반도체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와 제1차금속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9.1% 증가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월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한 73.8%로 전월에 비해서도 3.8%포인트 감소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1) 산업생산·출하·재고지수와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등은 '2000년 기준 생산자물가 개편' 결과 반영과 연간보정 작업으로 인해 2000년 1월 이후 자료가 변경됨. 도소매 판매액지수는 2000년 기준으로 개편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변경되었으며, 경기종합지수도 구성지표의 시계열 변동에 따라 전체 시계열이 변경됨(통계청, 『2003년 7월중 산업활동동향』 2003. 8.을 참조).

<표 1>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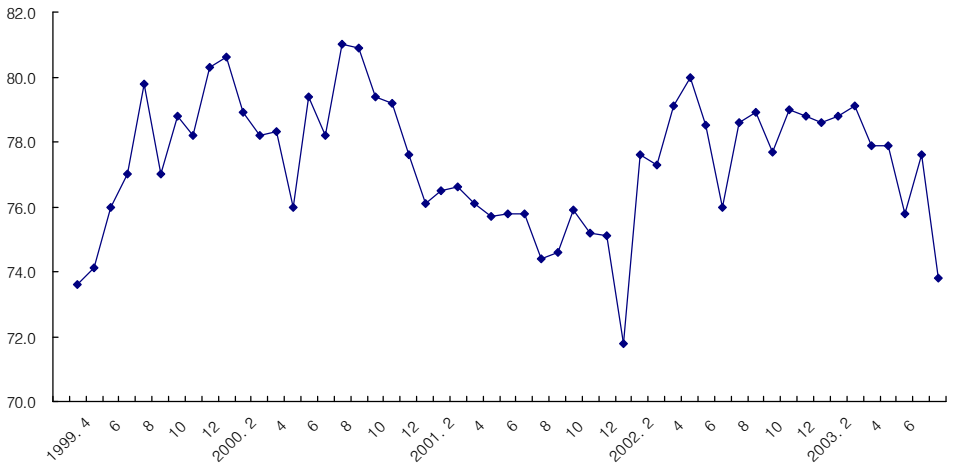
(단위 : %, 1996=100,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5월	6월p	3/4분기 7월p
생 산	109.1 (7.2)	106.2 (6.9)	116.4 (11.5)	110.0 (6.1)	112.4 (3.0)	111.3 (-0.9)	112.2 (8.4)	108.0 (0.7)
제 조 업	109.2 (7.2)	106.2 (7.2)	115.8 (11.3)	108.5 (5.8)	112.4 (2.9)	111.3 (-1.2)	112.4 (8.7)	107.7 (0.7)
서 비 스 업	154.1 (9.6)	153.1 (8.5)	157.2 (7.1)	149.0 (1.6)	154.3 (0.2)	155.6 (-1.0)	155.5 (2.0)	155.9 (1.1)
출 하	109.6 (6.8)	106.2 (6.3)	116.4 (11.0)	110.0 (4.8)	112.4 (2.8)	111.3 (-1.1)	112.2 (8.8)	108.0 (1.4)
재 고	102.8 (-5.9)	102.1 (-3.3)	104.9 (-0.4)	112.2 (10.1)	113.0 (9.9)	113.5 (11.8)	113.0 (9.9)	113.7 (9.1)
평 균 가 동 률	78.2	78.4	78.8	78.6	77.1	75.8	77.6	73.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서비스업 생산은 1996=100, 평균가동률은 %, 그 외에는 2000=100.
서비스업 생산은 『2002년 7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을 참조한 것임.
생산, 출하, 재고는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광공업동태조사」에 기초함.
평균가동률은 제조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2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03. 8.

[그림 1]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2003년 7월의 소비는 감소

– 도소매 판매는 도매업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분규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 감소와 소매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

– 내구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2.6% 감소하고, 비내구소비재가 1.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표 2> 소비 동향

(단위 :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5월	6월p	3/4분기 7월p
도 소 매 판 매	115.4 (8.6)	113.6 (7.4)	120.7 (7.1)	113.4 (1.5)	113.4 (-1.7)	115.6 (-1.9)	111.9 (-0.4)	109.9 (-1.8)
내수용 소비재 출하	111.5 (7.1)	109.2 (4.7)	116.2 (9.5)	106.4 (-1.6)	103.2 (-7.4)	104.2 (-11.2)	112.1 (-4.2)	100.5 (-3.6)
내 구 재	125.2 (14.4)	118.3 (10.0)	123.8 (15.1)	109.8 (-4.4)	109.4 (-12.6)	112.1 (-16.8)	104.0 (-10.7)	99.6 (-12.6)
비 내 구 재	105.1 (3.3)	104.9 (2.0)	112.7 (6.9)	104.9 (-0.1)	100.3 (-4.6)	100.5 (-8.1)	102.3 (-0.6)	101.8 (1.2)

주 : 도·소매업 판매지수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동태조사」에 기초함.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8.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허가 면적, 종합주가지수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증가한 107.0을 기록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월에 98.7

–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114.7

<표 3> 경기종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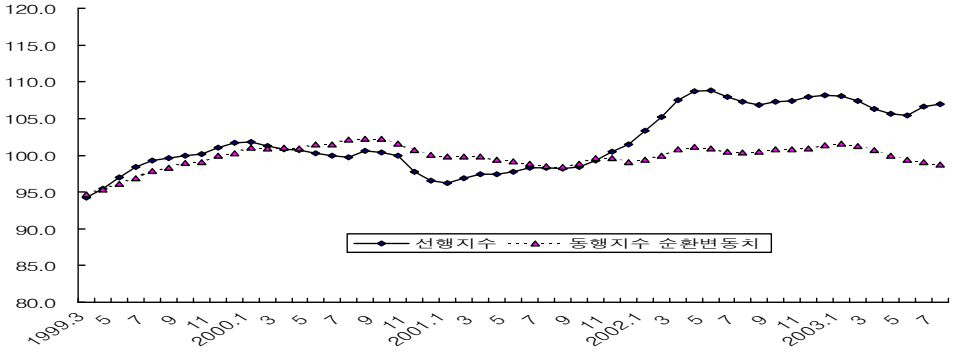
(단위 : 2000=100)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5월	6월p	3/4분기 7월p
선행종합지수	108.5	107.1	107.8	107.3	105.9	105.4	106.6	107.0
동행종합지수	110.0	111.2	113.2	114.9	114.5	114.4	114.6	114.7
후행종합지수	110.1	112.1	112.8	114.9	116.3	116.3	117.0	117.9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8	100.6	101.0	101.2	99.5	99.4	99.1	98.7

자료 : 통계청, 『2003년 7월 중 산업활동동향』, 2003. 8.

[그림 2] 경기종합지수

(단위 :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 8월중 물가 다시 상승

○ 2003년 8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부문별로 보면, 도시가스 요금 인하에 따른 공공서비스 부문 물가는 하락했으나, 잦은 비로 인한 과실 및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및 주거비 부문의 물가가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7% 상승

○ 8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는 1.9%, 전월대비로는 0.4% 각각 상승

- 장마로 인한 채소류 및 과실류의 출하물량 감소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산품 물가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됨.

<표 4> 물가지수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106.9 (2.7)	107.4 (2.6)	107.9 (3.3)	109.8 (4.1)	110.5 (3.4)	110.2 (3.0)	110.1 (3.2)	110.6 (3.0)
생활 물가지수	108.0 (2.6)	108.2 (2.1)	108.5 (3.0)	111.1 (4.6)	111.7 (3.4)	111.2 (3.1)	111.2 (3.7)	112.0 (3.5)
생산자 물가지수	99.7 (-0.5)	99.2 (-0.2)	99.7 (1.6)	101.2 (3.0)	101.0 (1.3)	100.5 (1.1)	100.7 (1.6)	101.1 (1.9)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4)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8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3. 9.
통계청, 『2003년 8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200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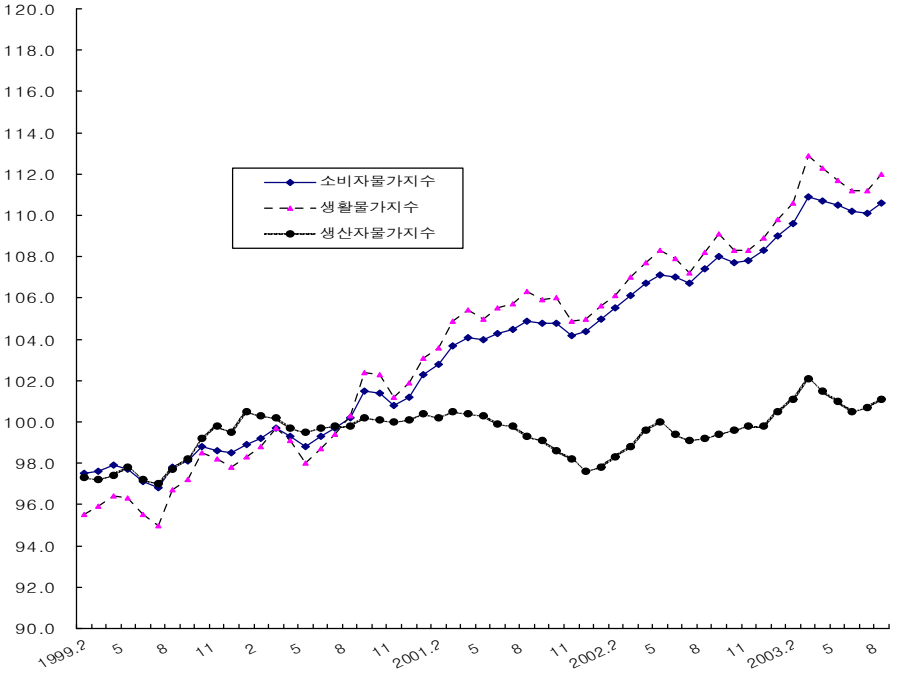
◈ 무역수지 흑자 지속

○ 2003년 8월 중 수출은 154.8억달러, 수입은 135.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9.3억달러 흑자를 기록, 4월 이후 흑자 지속

- 2003년 8월 중 수출(통관기준)은 154.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 2003년 8월 중 수입(통관기준)은 135.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3/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p	6월p	7월p	8월p
경 상 수 지	1,600.1	929.4	1,970.6	-1,721.3	2,524.4	1,709.9	425.9	-
수 출 액 1)	40,252 (4.9)	41,255 (15.9)	45,308 (24.6)	43,054 (20.7)	46,088 (14.5)	15,678 (21.6)	15,467 (15.5)	15,483 (10.9)
수 입 액 1)	37,192 (7.8)	38,884 (13.8)	42,262 (23.1)	44,211 (30.8)	41,680 (12.1)	13,400 (12.3)	14,850 (14.0)	13,556 (5.4)
평 균 환 율	1,269.5	1,196.6	1,220.6	1,201.0	1,208.9	1,194.0	1,181.6	1,178.4

주 : 1) 통관기준.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3년 8월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3. 9.
한국은행, 『2003년 7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 2003. 8.
_____, 경제통계 DB.

노동동향

고용 동향

최효미*

◈ 고용사정 여전히 부진

○ 2003년 8월 중 실업자는 전년동월에 비해 65천명 증가한 756천명(실업률 3.3%)을 기록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0.4%(-97천명) 감소한 22,126천명을 기록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한 22,883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14,508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 61.9%에 비해 0.7%포인트 하락

○ 전월대비 경제활동상태별 변화를 보면, 실업자는 25천명 감소하고, 취업자는 330천명 감소
- 8월 중 실업자수의 감소는 개학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감소에 기인

◈ 실업자수 증가세 둔화

○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20대와 40대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2천명, 30천명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둔화되는 경향
- 전월대비 실업자수는 개학을 앞둔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계층에서만 약간 감소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증가
- 40~4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0천명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15천명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chm@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3,112 (2.0)	23,067 (1.8)	22,989 (1.4)	22,439 (0.4)	23,055 (-0.2)	23,138 (-0.1)	23,238 (0.2)	22,883 (-0.1)
참가율	62.6	62.3	62.0	60.3	61.8	62.0	62.2	61.2
취업자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83 (-0.6)	22,456 (-0.3)	22,126 (-0.4)
실업자	689	652	663	806	751	755	781	756
실업률	3.0	2.8	2.9	3.6	3.3	3.3	3.4	3.3
비경제활동인구	13,807 (-0.5)	13,944 (-0.2)	14,107 (0.4)	14,755 (1.9)	14,243 (3.2)	14,192 (2.9)	14,128 (2.4)	14,508 (2.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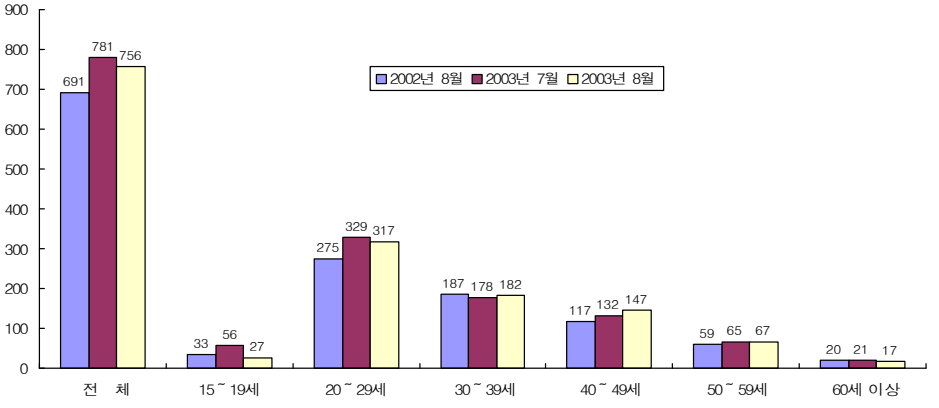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55 (3.3)	781 (3.4)	756 (3.3)
15~19세	36 (10.6)	34 (9.6)	33 (11.2)	38 (11.6)	31 (11.2)	43 (14.9)	56 (14.7)	27 (8.1)
20~29세	291 (6.0)	271 (5.7)	291 (6.1)	387 (8.2)	331 (7.1)	323 (6.9)	329 (6.9)	317 (6.8)
30~39세	173 (2.7)	167 (2.6)	176 (2.8)	177 (2.8)	179 (2.8)	178 (2.8)	178 (2.8)	182 (2.9)
40~49세	110 (1.8)	107 (1.8)	99 (1.6)	118 (2.0)	126 (2.0)	127 (2.0)	132 (2.1)	147 (2.4)
50~59세	56 (1.8)	51 (1.6)	48 (1.5)	69 (2.2)	67 (2.0)	68 (2.1)	65 (2.0)	67 (2.1)
60세 이상	23 (1.0)	21 (0.9)	17 (0.8)	18 (0.9)	18 (0.8)	16 (0.7)	21 (0.9)	17 (0.8)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2003년 8월 중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 실업자는 2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학력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대졸 이상 학력자와 고졸자의 실업률이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상승
- 대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7천명 증가, 전월대비로도 12천명 증가
- 반면 고졸 실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 증가하였으나, 전월에 비해 43천명 감소하여 증가세가 완화됨.
-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0.3%포인트 증가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 체	689 (3.0)	652 (2.8)	663 (2.9)	806 (3.6)	751 (3.3)	755 (3.3)	781 (3.4)	756 (3.3)
중 졸 이 하	135 (2.0)	129 (1.9)	123 (1.9)	116 (2.0)	110 (1.8)	113 (1.8)	129 (2.1)	136 (2.3)
고 졸	343 (3.4)	328 (3.2)	325 (3.2)	426 (4.3)	385 (3.9)	399 (4.0)	426 (4.2)	383 (3.9)
대 졸 이 상	211 (3.4)	194 (3.1)	216 (3.4)	264 (3.9)	256 (3.7)	243 (3.5)	226 (3.2)	238 (3.4)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취업자수 감소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취업자는 97천명(-0.4%) 감소한 22,126천명

-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에서는 각각 206천명, 159천명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281천명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40대에서 144천명 증가한 반면, 20대에서는 131천명이 감소
- 2003년 8월 중 임금근로자수는 14,14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119천명(0.8%) 증가하였으며,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수도 전년동월대비 385천명(5.6%) 증가한 7,236천명

○ 전월대비 전체 취업자는 330천명(-1.5%) 감소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변동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11천명, -1.9%), 제조업에서 (-105천명, -2.5%) 감소하는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수가 감소함.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전 산 업	22,423 (2.7)	22,416 (2.4)	22,326 (1.8)	21,633 (0.6)	22,303 (-0.5)	22,383 (-0.6)	22,456 (-0.3)	22,126 (-0.4)
농림어업	2,251 (-5.1)	2,252 (-5.3)	2,046 (-4.0)	1,699 (-1.6)	2,127 (-5.5)	2,152 (-6.0)	2,102 (-6.5)	2,078 (-7.1)
광업	18 (5.9)	16 (-15.8)	17 (-10.5)	17 (-15.0)	17 (-5.6)	18 (5.9)	18 (12.5)	16 (6.7)
제조업	4,258 (-0.5)	4,214 (-0.3)	4,251 (-1.2)	4,168 (-1.7)	4,238 (-0.5)	4,225 (-0.4)	4,220 (0.2)	4,115 (-1.8)
건설업	1,791 (11.7)	1,781 (8.5)	1,812 (7.9)	1,734 (8.3)	1,854 (3.5)	1,864 (2.9)	1,843 (1.4)	1,799 (4.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004 (2.9)	6,017 (1.8)	5,977 (0.1)	5,919 (-1.2)	5,834 (-2.8)	5,839 (-2.9)	5,883 (-3.2)	5,772 (-3.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57 (6.7)	5,977 (7.1)	6,047 (6.9)	5,927 (2.6)	6,055 (1.6)	6,110 (1.9)	6,233 (4.1)	6,214 (4.7)
전기·운수· 창고 및 금융업	2,145 (0.0)	2,159 (0.9)	2,175 (0.6)	2,168 (0.8)	2,178 (1.5)	2,174 (1.3)	2,158 (-0.6)	2,131 (-1.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2003년 8월 고용동향』, 2003. 9.

◈ 신규실업자 비율은 감소, 전년대비로는 크게 증가

○ 2003년 8월 중 신규실업자는 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14천명) 증가
- 8월 중 전직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1천명(7.8%) 증가한 715천명
- 비중에 있어서는 신규실업자의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전직실업자의 비율은 증가세

○ 2003년 8월 중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을 살펴보면,
- 3개월 미만인 경우가 61.0%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다소 짧아지는 경향
- 구직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전년동월에 비해 크게 줄어듦.

<표 5>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 천명,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6월	7월	8월
신규실업자	43 [6.2]	30 [4.6]	37 [5.6]	106 [13.2]	60 [8.0]	55 [7.3]	59 [7.6]	42 [5.5]
전직실업자	646 [93.8]	622 [95.4]	626 [94.4]	700 [86.8]	692 [92.1]	700 [92.7]	722 [92.4]	715 [94.5]
3개월 미만	385 [59.6]	360 [57.9]	334 [53.4]	459 [65.6]	443 [64.0]	432 [61.7]	463 [64.1]	436 [61.0]
3~5개월	178 [27.6]	175 [28.1]	191 [30.5]	189 [27.0]	186 [26.9]	199 [28.4]	194 [26.9]	192 [26.9]
6~11개월	66 [10.2]	67 [10.8]	84 [13.4]	51 [7.3]	60 [8.7]	67 [9.6]	64 [8.9]	83 [11.6]
12개월 이상	16 [2.5]	20 [3.2]	17 [2.7]	2 [0.3]	2 [0.3]	2 [0.3]	2 [0.3]	3 [0.4]

주 :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시간 크게 감소

○ 2003년 8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3.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4시간, 전월에 비해서도 2.2시간 줄어듦.
- 2003년 8월 중 전체 취업자의 근로시간도 전년동월 46.4시간에서 1.2시간 감소
- 이는 여름휴가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와 주 5일제를 실시하는 사업장 증가에 기인

- 전년동월대비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시간이 단축됨.
- 전월대비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을 살펴보아도 모든 지위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함.

<표 6>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 시간/주)

	2002			2003				
							3/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6월	7월	8월
전체	50.8	48.4	50.2	49.2	50.0	50.6	47.4	45.2
임금근로자	49.8	47.3	49.7	48.8	49.3	49.2	45.8	43.1
상용직	51.0	47.4	50.8	49.1	50.6	50.6	46.1	42.0
임시직	51.5	49.5	51.1	50.6	50.4	50.1	48.0	46.1
일용직	43.3	42.4	44.0	42.0	42.4	42.5	39.8	39.6
비임금근로자	52.5	50.4	51.0	50.0	52.6	53.0	50.2	48.9
고용주	56.8	54.7	56.1	56.7	56.9	57.0	54.6	52.5
자영자	51.7	49.5	49.8	48.2	51.7	52.2	49.1	47.6
무급가족종사자	50.6	49.1	49.6	48.2	51.0	51.6	49.1	48.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노동동향

임금 동향

강승복*

◈ 전년보다 낮은 임금상승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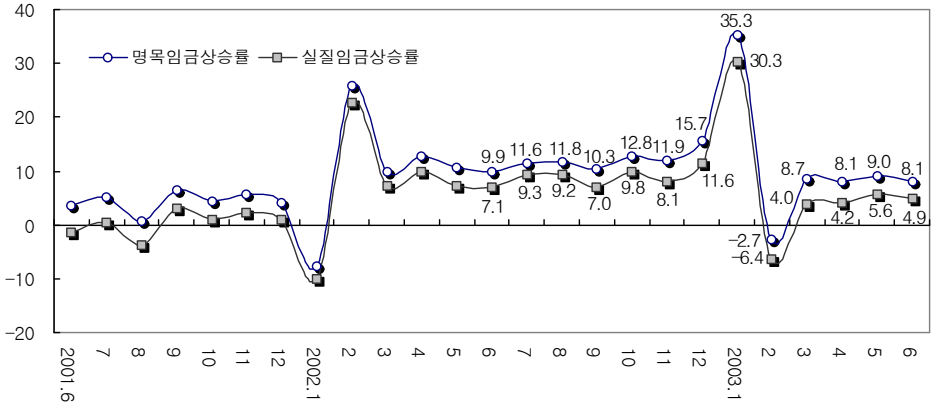
○ 2003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68천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1%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임금총액 상승률 9.9%보다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2,274천원으로 5인 이상 사업체와 동일한 8.1%의 상승률 기록
- 1~6월(상반기) 임금총액은 2,058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
- 4~6월(2/4분기) 임금총액은 2,01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3% 상승
- 2003년 6월 임금변화의 특징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총액 및 정액급여 상승률의 둔화세 지속, 서비스업 임금상승률의 둔화,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등임.

○ 실질임금 상승률도 전년보다 2.2%포인트 하락
- 2003년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에서 전년동월에 비해 4.9% 상승
- 이는 전년동월의 실질임금 상승률 7.1%보다 2.2%포인트 낮은 것
- 올 들어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명목임금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낮게 나타남.
- 1~6월(상반기)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6.7% 상승하였으며 4~6월(2/4분기)로는 4.7% 상승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원,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임 금 총 액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정 액 급 여	1,396 (12.0)	1,415 (11.6)	1,453 (12.7)	1,494 (9.0)	1,513 (8.4)	1,519 (8.5)	1,520 (8.4)
초 과 급 여	127 (-2.8)	127 (-3.3)	133 (-1.4)	128 (9.3)	135 (6.5)	138 (8.0)	137 (7.7)
특 별 급 여	338 (12.9)	452 (14.7)	490 (22.2)	481 (28.5)	366 (8.4)	209 (13.5)	511 (7.3)
실 질 임 금	1,740 (8.1)	1,856 (8.4)	1,924 (10.2)	1,915 (8.5)	1,822 (4.7)	1,689 (5.6)	1,967 (4.9)
소비자 물가	106.9 (2.7)	107.4 (2.6)	107.9 (3.3)	109.8 (4.1)	110.5 (3.4)	110.5 (3.2)	110.2 (3.0)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1월 이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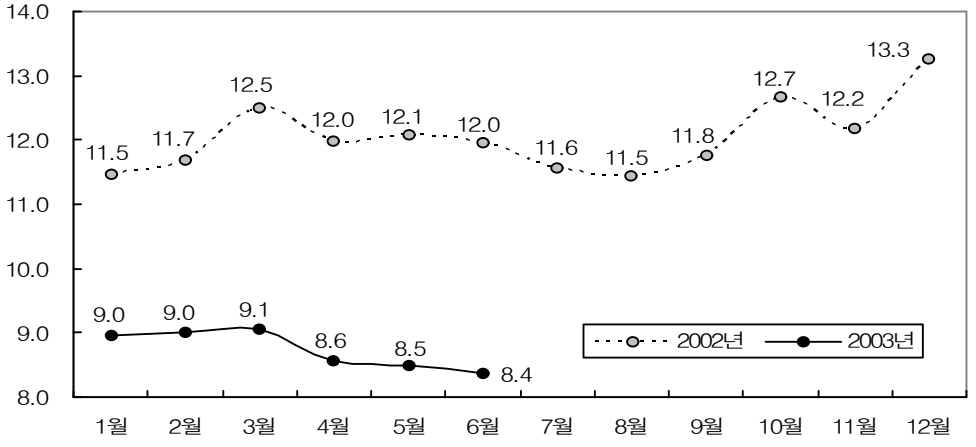
○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둔화한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오름세

- 2003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20천원으로 전년동월(1,403천원)에 비해 8.4%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12.0%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정액급여 상승률은 2003년 1월 이후 전년보다 낮은 수치 지속
-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7.7%로 전년의 -4.7%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특별급여는 511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3%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의 상승률 8.4%보다는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1~6월(상반기) 상승률은 정액급여 8.7%, 초과급여 7.9%, 특별급여 19.0%로 나타났으며 4~6월(2/4분기)로는 각각 8.4%, 6.5%, 8.4%를 기록

[그림 2]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 정액급여가 임금상승률을 주도

- 2003년 6월 임금총액 상승률 8.1%를 100이라 놓을때 정액급여의 기여율은 72.4%로 전체 임금상승률의 대부분을 차지[1)]
- 초과급여의 기여율은 6.0%, 특별급여의 기여율은 21.5%를 기록

◈ 시간당 임금은 6.7% 상승

○ 2003년 6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각각 10,576원, 9,296원을 기록

-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6.7%, 5.9% 상승한 수치임.
-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6월 들어 총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한데 영향을 받아 임금총액 상승률(8.1%)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1~6월(상반기) 시간당 임금은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980원, 8,786원으

1) 임금상승률에 대한 내역별 기여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frac{\triangle TWG}{TWG} = \frac{\triangle RWG}{RWG}\frac{RWG}{TWG} + \frac{\triangle OWG}{OWG}\frac{OWG}{TWG} + \frac{\triangle SWG}{SWG}\frac{SWG}{TWG}$$

로 전년동기대비 10.9%, 10.2% 상승

- 4~6월(2/4분기)로는 비농전산업과 제조업이 각각 9,699원, 8,451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 5.9% 상승

<표 2> 시간당 임금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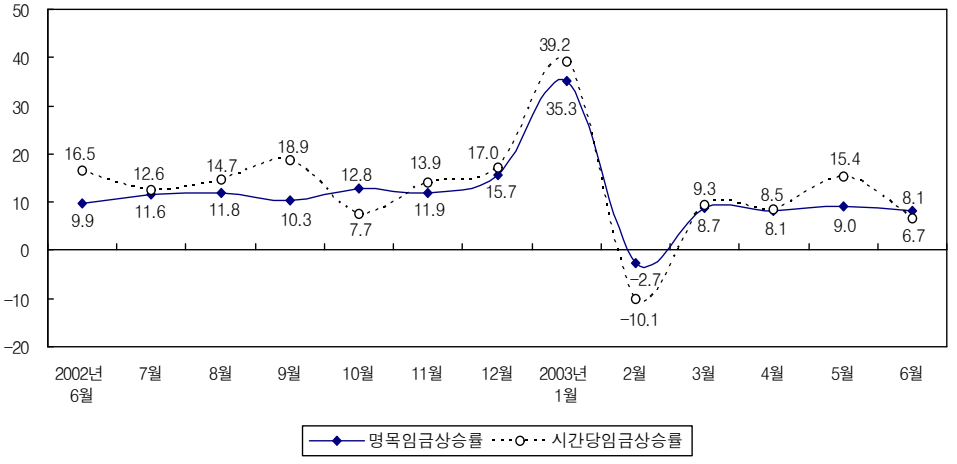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산업	임금총액(천원)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4(8.3)	1,866(9.0)	2,168(8.1)
	시간당임금(원)	8,994(14.8)	9,648(15.3)	9,681(13.1)	10,272(11.6)	9,699(7.8)	9,012(15.4)	10,576(6.7)
제조업	임금총액(천원)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73(7.2)	1,713(6.9)	2,033(7.2)
	시간당임금(원)	7,979(14.4)	8,784(15.0)	8,896(15.2)	9,134(11.4)	8,451(5.9)	7,744(12.3)	9,296(5.9)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3) 시간당 임금은 (월평균 임금)÷(정상근로시간+1.5×초과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3] 명목임금 및 시간당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둔화세

○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6월 건설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1.3%, 11.8%로 전산

업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과 사회개인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은 6%대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

<표 3>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산 업	1,860(11.0)	1,994(11.2)	2,076(13.8)	2,102(12.9)	2,014(8.3)	1,866(9.0)	2,168(8.1)
제조업	1,747(10.7)	1,909(11.9)	2,028(17.3)	1,984(13.7)	1,873(7.2)	1,713(6.9)	2,033(7.2)
건설업	1,772(8.6)	1,932(9.0)	1,937(12.9)	2,058(14.7)	1,937(9.3)	1,826(9.0)	2,061(11.3)
도매 및 소매업	1,819(10.6)	1,925(9.9)	1,983(6.4)	2,064(13.0)	1,985(9.1)	1,816(9.0)	2,140(7.4)
숙박 및 음식점업	1,337(16.4)	1,385(14.3)	1,436(19.7)	1,409(8.5)	1,415(5.8)	1,312(6.1)	1,502(6.6)
운수창고통신업	1,930(8.3)	1,959(9.2)	2,051(10.8)	2,040(15.6)	2,115(9.6)	1,816(9.8)	2,302(8.2)
금융 및 보험업	2,720(16.4)	2,936(10.8)	3,080(14.5)	3,520(16.3)	3,050(12.1)	2,959(20.1)	3,257(11.8)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727(15.5)	1,764(12.5)	1,823(13.5)	1,817(6.9)	1,811(4.9)	1,728(4.7)	1,915(6.1)
사회개인서비스업	1,969(11.2)	2,123(13.8)	2,119(14.4)	2,165(10.6)	2,131(8.2)	2,062(10.1)	2,231(6.6)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5~9인 사업체의 임금, 500인 이상 사업체의 49.6% 수준

–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동월에 비해 9.4%로 가장 높고 10~29인이 3.4%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하지만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9.4%는 전년동월의 15.7%에 비하여 6.3%포인트나 감소한 수치

○ 규모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500인 이상 규모의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 소폭 확대

– 전년동월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3.6포인트의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

<표 4>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500인 이상=100)

(단위 : 천원, %)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규 모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5 ~ 9인	1,421 (9.8)	1,519 (9.2)	1,503 (9.7)	1,509 (5.0)	1,479 (4.1)	1,441 (5.6)	1,547 (5.4)
10 ~29인	1,654 (9.5)	1,745 (4.7)	1,767 (7.2)	1,787 (6.5)	1,728 (4.5)	1,687 (9.6)	1,800 (3.4)
30 ~99인	1,789 (11.5)	1,919 (10.5)	1,925 (9.6)	1,965 (9.5)	1,910 (6.8)	1,827 (9.5)	2,037 (7.8)
100~299인	1,958 (12.5)	2,119 (17.7)	2,233 (18.0)	2,150 (12.7)	2,160 (10.4)	1,966 (7.2)	2,322 (7.6)
300~499인	2,233 (8.0)	2,384 (10.2)	2,577 (14.9)	2,394 (9.1)	2,380 (6.6)	2,111 (4.5)	2,589 (4.9)
500인 이상	2,534 (14.9)	2,739 (17.9)	3,065 (26.5)	3,123 (23.0)	2,763 (9.1)	2,366 (8.3)	3,119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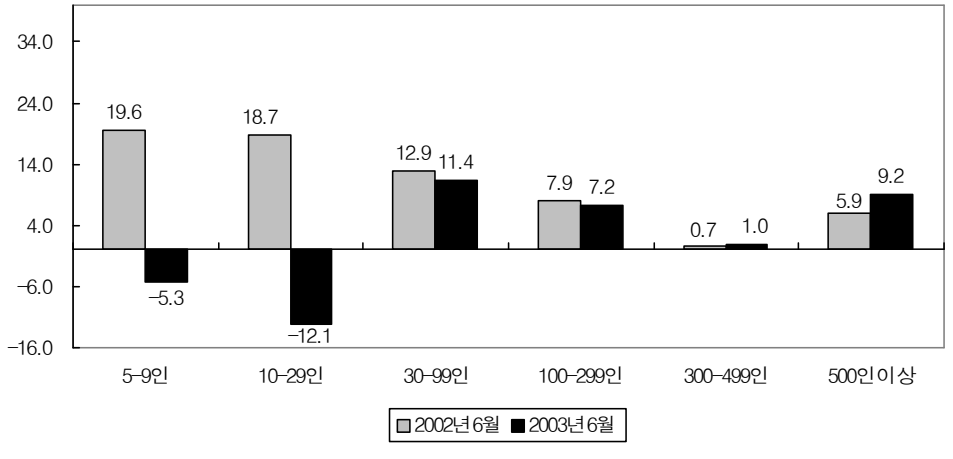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 2003년 6월의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을 보면, 5~9인 및 10~29인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300~499인 및 500인 이상 사업체는 전년동월보다 높게 나타나 특별급여가 규모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그림 4]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 성별 임금격차 소폭 확대 경향 지속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임금격차가 소폭 확대
- 2003년 6월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여성의 6.5%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남성의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의 임금수준은 62.6로 전년동월(63.9)과 비교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2002년 10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전년동월에 비해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

<표 5>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지수 : 남성=100)

(단위 : 천원,%)

	2002			2003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월	6월
전 체	1,860 (11.0)	1,994 (11.2)	2,076 (13.8)	2,102 (12.9)	2,014 (8.3)	1,866 (9.0)	2,168 (8.1)
남 성	2,090 (10.6)	2,242 (11.3)	2,352 (14.2)	2,376 (13.8)	2,274 (8.8)	2,100 (9.3)	2,450 (8.6)
여 성	1,340 (11.7)	1,435 (10.2)	1,455 (11.9)	1,487 (10.6)	1,430 (6.7)	1,342 (8.5)	1,534 (6.5)

주 :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전년보다 더딘 임금교섭, 낮은 협약임금 상승률 지속

○ 2003년 8월 31일 현재 협약임금 상승률(임금총액 기준)은 6.6%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6.9%보다 0.3%포인트 하락
- 임금교섭 타결업체 중 임금인상업체의 비율은 85.1%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89.4%보다 감소
- 반면 동결업체 비중은 14.7%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4%보다 증가하였으며, 하향조정업체의 비중은 0.2%로 동일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 상승률은 6.6%로 전년동기의 7.1%보다 하락하였으나 공공부문은 5.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의 4.6%에 비해 높은 상승률 기록

○ 임금교섭은 전년동기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2003년 8월 31일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5,751개소 중 3,372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어 58.6%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의 65.1%에 비해 더디게 진행 중

–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진도율은 59.4%로 5,575개소 중 3,311개소에서 교섭이 타결되었으며, 공공부문은 176개소 중 61개소가 타결되어 34.7%의 진도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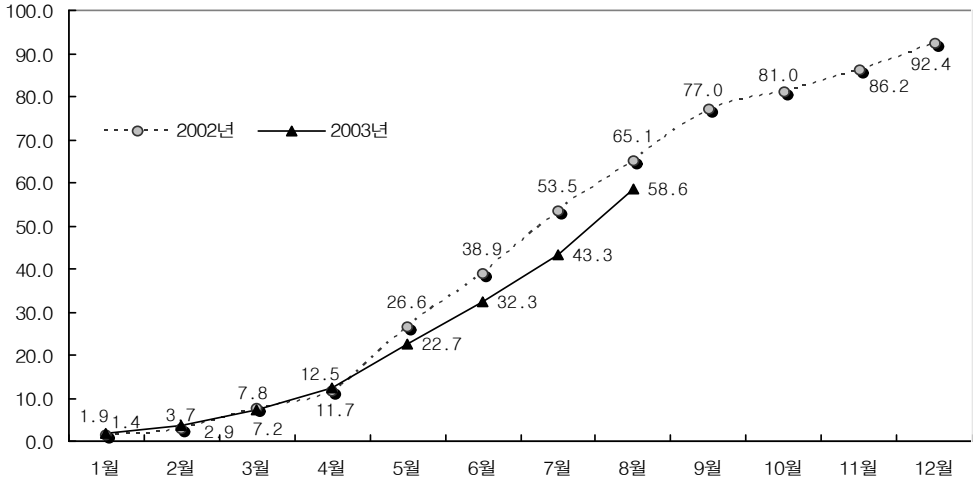
<표 6> 주요 임금교섭 동향(2003년 8월 31일 현재)

(단위 : 개소, %)

	지도대상업체(A)	타결업체(B)	임금교섭 진도율 (B/A)	협약임금 상승률 (임금총액 기준)
전 체	5,751 (5,401)	3,372 (3,517)	58.6 (65.1)	6.6 (6.9)
민간부문	5,575 (5,236)	3,311 (3,453)	59.4 (65.9)	6.6 (7.1)
공공부문	176 (165)	61 (64)	34.7 (38.8)	5.8 (4.6)

주 : 1) 100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2)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자료임.
자료 : 노동부 임금정책과, 『임금교섭 타결현황』.

[그림 5] 임금교섭 진도율 월별 추이(2002, 2003년)



노 동 동 향

노사관계 동향

김 정 우*

Ⅰ. 노사분규 동향

◈ 근로손실일수 감소, 발생건수·분규참가자수 증가

○ 2003년 9월 18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와 분규참가자수는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감소(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286건으로 전년동기 260건에 비해 다소 증가
- 분규참가자수는 126천명으로 전년동기 85천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1,119천일로 전년동기의 1,362천일에 비해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부분파업의 영향으로 판단됨.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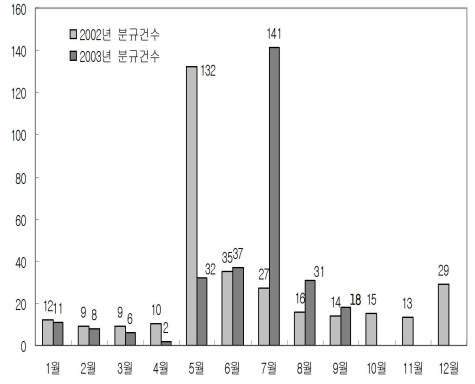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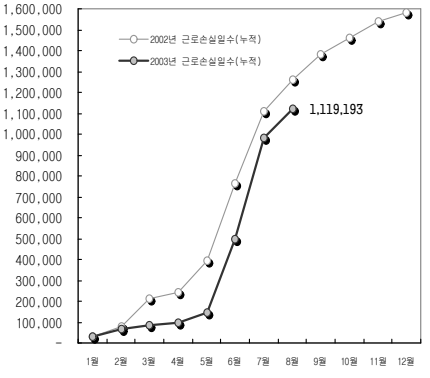
	2001. 9. 18	2002. 9. 18	2003. 9. 18
노사분규발생건수	185	260	286
분규참가자수(명)	65,166	84,929	126,470
근로손실일수(천일)	685	1,362	1,119

자료 :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jw@kli.re.kr).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2, 2003년)





Ⅱ.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2003. 9. 4. 노동부장관은 노·사·정·공익대표가 함께 한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발표함.

– 노동부는 "국제경쟁의 심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등 노동환경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나 우리 경제는 독과점 경영과 힘있는 노조간의 과도한 노사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와중에 취약근로자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격차의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관계 개혁의 비전과 방향을 마련, 발표하고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구체화한 후 법제화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주요 내용[1)]

- 노사관계 개혁의 3대 목표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임.
- 우선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위적 규제보다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합리적 노동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강화
  -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사용자의 대응권리도 보장함과 동시에 노사가 참여와 협력 속에 '고성과·고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신뢰증진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확충
  - 구체적으로 노동기본권 중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과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교섭창구는 단일화)하고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제한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면서 조정전치주의를 폐지
  - 사용자 대항권과 관련해서는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법령이 정한 기준 내 급여지원은 예외)하고 단협 유효기간 상한선(현행 2년)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형사처벌규정을 폐지하며, 쟁의행위 합·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공익사업에 한해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긴급조정제도를 60일로 확대(현행 30일)
  - 이와 함께 직접 선출 등을 통해 노사협의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유 및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여 기업단위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업종·산업·지역단위 노사(정) 협의기능을 강구함.
- 다음으로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임금, 근로시간, 고용 등 유연성을 제고하되 전체 노동시장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병행
  - 이를 위해 정리해고 협의기간의 상한선을 60일로 하되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해고유연성을 확대하고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1) 문무기,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매월노동동향』, 2003. 10. 참조

서는 정리해고 규정의 적용배제나 완화방안을 강구하며, 기업양도시 기존의 취업규칙과 단협의 효력을 1년간만 인정함(현재 명문규정 부재).

·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확대 등 근로시간의 유연화 방안을 강구하고 임금유연성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 임금체계, 합리적 임금피크제 등의 확산방안을 강구함.

–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를 위해 임금·복지 등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적응에 실패하거나 애로를 겪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내실화함.

· 이를 위해 청년층,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인력수급 인프라 및 고용안정 인프라를 확충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향후 계획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중 공무원노조 허용, 비정규직 남용 규제, 퇴직연금제 도입 등 이미 노사정위원회를 거친 사안은 노동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노동시장 안정대책, 사회안전망 확충 등 법개정과 무관한 정책사항은 일관되게 집행함.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지난 8. 19.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2)]

–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2030년에 15.90% 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의

2) 김호경,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와 향후 정책과제」, 『매월노동동향』, 2003. 10. 참조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 적용

- 이와 함께 감액노령연금의 지급액 상향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하한선 인상 등 제도합리화 도모
-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 수행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노사관계 개혁방향” 관련 노사간 대조적 입장표명

○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해 양대노총 반대 천명
- 한국노총은 9. 4. “노사관계 개선방안은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이 대거 반영되어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실망감을 표명
-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은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인 반면,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 등 재계에 유리한 부분은 전사업장 내지는 전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자측 주장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이 내용을 현장에 도입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노사갈등과 분규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노동기본권 확대를 주장
- 민주노총 역시 “노사관계 선진화 이정표가 실제 노사관계를 개혁할 핵심과제가 빠진 채 사용자 대항권만 대폭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를 후진화하고 노사대결을 부축이게 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거부와 ‘노동3권 보장투쟁’ 전개를 천명
- 다만 양대노총 모두 실업자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과 직권중재 폐지, 손배 가압류 완화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

○ 재계 대체로 환영 속에 엄정한 법집행 강조
- 경총은 “노사관계 개혁이 전임자 급여지급과 같은 비합리적 관행과 불법행위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주고받고식 법개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라고 주장
- 전경련은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 조치라는 측면에서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다행스럽게 평가하며 향후 산업평화 정착에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함.

○ 노동부의 “노사관계 개혁방향”에 대한 양대노총의 반대가 강해 하반기 노사정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

◈ 노사단체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양대노총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양대노총은 “정부측의 국민연금 개정안이 연금재정을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채우기 위해 무리한 보험료율 인상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
- 양대노총은 정부안의 즉각 철회, 저소득계층 보험료의 국고지원, 국방비 등 예산 절감과 직접세 강화를 통한 국민연금 재정마련 등을 주장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정부계획 역시 연금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가입자들의 통제권을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천명

○ 경총도 국민연금 개정안 반대
- 경총은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상향조정하는 국민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과도한 사회보장비용이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투자위축을 불러와 고용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장
- 경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대로 하향조정하고 보험료를 현행 9%대로 유지하면서 퇴직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전체 6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 방안을 주장

○ 특히 양대노총은 참여연대, 전농, 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정부의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국회통과 저지를 천명한 바 있어 이 문제가 하반기 노정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임.